

독도 지역전설을 통해 본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

권 도 경
(상지대 인문사회연구소)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독도 지역전설의 존재양상과 특징이 한국전설의 일반적인 유형성 속에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독도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지역전설이란 한반도 전역에 보편적으로 전

-
- 1) 그동안 독도에 관한 연구는 영유권과 지리적·지질적 특수성 등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 쪽으로만 편중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독도에 관한 지역학으로서의 독도학은 한국 전설의 양상과 특징, 즉 그 유형적 보편성 속에 위치하는 독도 전설의 특수성에 관한 문학적인 연구가 보충·축적될 때, 연구의 치우침 현상을 극복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 수 있다. 동시에 독도 전설에 관한 연구를 한국 지역 전설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편입할 때, 한국 전설의 보편적인 지도도 완성될 수 있다. 독도 전설에 관한 연구는 지역학으로서의 독도학뿐만 아니라 한국 전설에 관한 연구사에도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다. 독도 지역전설에 관한 본 연구는 그 자체 내부의 범주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 전설의 유형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체계화된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문학적인 확인이라는 목적 외에, 한국 전설에 관한 연구사가 지역학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독도학 위한 학문적인 초석

승되는 광포전설과 달리 특정 지역의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한국전설은 지역전설과 광포전설로 구성되며, 독도의 지역전설은 해당 지역의 자연이나 지명, 풍속신앙 등의 유래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은 한반도 여타 지역의 그것과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도 지역전설에서 확인되는 차별성은 광포전설이 보여주는 보편성과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독도의 지역전설이 독도의 지명, 자연, 풍속신앙 등의 유래를 설명하는 방식은 한반도 여타 지역의 그것과 동일하다. 독도의 지역전설이 설명하는 독도의 지명, 자연, 풍속신앙 등의 유래, 즉 독도 지역전설의 내용 자체가 한반도 여타 지역전설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풀어내는 방식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지역전설의 서사원리가 형성하는 보편적 일반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도의 지역전설 자료에서 확인되는 특수성이 한국전설의 보편성 속에 있다는 것은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의 그것 속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동해상의 한 지리적 좌표상에 위치한 독도란 지역의 문화적 전통성이 한국의 그것이 형성하는 보편적인 바운더리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독도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한국의 그것 이외의 범주와는 차별성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역사기록, 법률외교 문서 등으로 입증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한반도의 그것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구조 속에 위치하는 일부분으로서 그 상대적인 위치를 규정할 수 있을 때, 사료와 문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상동성을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독도의 지역전설의 존재양상과 특징이 한국전설의 보편적인 일반성 속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논의는 독도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학적 확인일 수 있다는 논리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²⁾

을 다지는 기본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자연전설

독도의 지역 전설 속에서 자연 전설은 도서 전설의 형태가 유일하다. 독도가 동해 가운데 위치한 도서 지역인데다 좁은 바위섬이다 보니, 그 섬 자

2) 본 연구는 독도전설의 하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지역전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독도 전설에 대한 관련 자료는 울릉도 전설을 편집해 놓은 □□울릉군지□□(□□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를 필두로 하여, 독도 관련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문헌에 일부 산재해서 전한다. 기실 독도 전설 자료는 소략한 편이다. 이는 독도가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설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료의 편수가 연구의 부채를 합리화 하는 절대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동시에 그것이 연구의 질을 담보해 줄 수도 없다. 본 연구는 독도의 역사, 문화 등을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도 관련 연구서와 지역 향토 사료집, 향토지리지에서 독도가 등장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독도 관련 전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설과 경북 전설의 유형적인 보편성 속에서 독도 전설이 차지하는 특수성 및 정체성, 독도 전설의 존재 양상 및 특징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독도전설이라는 한 연구 범주를 성립시키기 위해 대상으로 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1) □□삼국사기□□

(02) □□삼국유사□□

(03) □□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04) □□자연실태종합학술보고서: 울릉도 및 독도□□,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96

(05) 「울릉도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대 박물관 학술총서□□6, 서울대 박물관, 1997

(06)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07) □□아름다운섬 독도□□, 해양수산부, 2000

(08)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2000

(09)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88□□, 이예곤·김성호, 예나루, 2005

(10)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11)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국립중앙박물관, 2006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 텍스트들 사이에는 자료의 역사적 시기별 낙차와 편폭이 존재한다. 역사적 변화가 독도전설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밝혀보도록 하겠다.

체를 설화의 대상으로 하는 도서 전설의 형태로 전승되는 것이다. 독도가 소속된 광역 행정 구역인 경북 지역의 자연 전설 속에 산악, 암석, 고개, 용천 등의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하며, 독도 인근에 위치한 울릉도 전설 속에 울릉도에 대한 도서 전설 외에 선인봉을 대상으로 한 산악 전설이 존재하는 것과 차별화 된다. 경북 지역 전체가 한반도의 내륙에 위치해 있으면서 다양한 자연지물이 발달해 있으며, 울릉도가 도서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 속에 산악 지형이 다수 발달해 있는데 비해 독도 지역은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지리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의 지역 전설 중 자연 전설 유형으로 존재하는 도서 전설의 대표적인 예는 「假山島(于山島)의 비밀」³⁾이다. 울릉도의 어부 세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 바위투성이에 왕대발만 있는 무인도에 표류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신선처럼 보이는 노인을 만나 물과 먹을거리를 청하니, 대신 하나를 먹으면 1년을 살 수 있는 사과를 주었다. 기운을 차린 세 명의 뱃사람들에게 노인이 갈 길을 인도해 준 뒤, 과일 세 개를 주며, 햇빛 없는 곳에 보관하였다가 석 달 열흘 뒤에 먹으라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울릉도에 돌아와 안개에 쌓인 신비한 무인도에 있는 기이한 노인, 신비한 과일,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하니 마을 사람들이 세 사람의 어부를 부추겨 또 다시 신비의 섬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복숭아 꽃만 피내려 오는 것을 보았을 뿐 풍랑이 심해 끝내 그 섬을 다시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야 말았다.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의 주 무대가 되는 가산도(假山島) 혹은 우산도(于山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 인식은 지리적·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도서 지역을 구분하려는 의식의 소산일 뿐, 문화적으로 독도는 울릉도 문화권에 속해 있다. 어로와 무역을 위해 울릉도에 기지를 둔 지역민들이 독도에도 출입했겠지만 독도는 본질적으로 무인의 바위섬으로서 일시적인 어로행위와 교역의 중간 기착지로 기능했을

3)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2-349쪽.

뿐, 그 본격적인 거점은 울릉도에 있었다. 도서 지역으로서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울릉도에 정착 기지를 마련해 두고 독도를 아우르는 것이 우산국 이래 동해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한 지역민들의 생활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도와 울릉도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배경에는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 외에도 두 도서 지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서로 가시거리 내에 있다는 지리적인 측면도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무릉(于山武陵)’이라 하여 하나의 광역(廣域)으로 인식해 왔다. 여기서 하나의 광역이란 개별적인 개체로서의 지역들이 모여 특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역적인 카테고리를 말한다. ‘우산무릉’ 중에서 ‘무릉(武陵)’은 울릉도에 해당되며, ‘우산(于山)’은 독도에 비정된다. 원래 ‘우산무릉’은 울릉도와 독도의 2도(島)가 아니라 울릉도 1도를 가리키는 말로 ‘우(于)’와 ‘무(武)’는 동일음을 표기하기 위한 한자의 차자 표기이다. ‘우산무릉’이 우산국(于山國)이 위치한 무릉도(武陵島), 즉 울릉도 본도(本島)를 지칭하는 표현에서 우산도(于山島)인 독도와 무릉도인 울릉도라는 2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분화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이며, 이것이 더욱 확고하게 된 것은 18세기 안용복(安鼎福) 시대 이후부터이다. □□숙종실록(肅宗實錄)□□, 22년 9월 무인(戊寅) 조, 안용복은 독도에 정박한 일본인들에게 우산도(于山島)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 선언을 함으로써 독도를 ‘우산무릉’인 울릉도 인근의 이름 없는 한 섬에서 독립된 개체로 존재성 선언을 하였다. 우산도를 독도에 비정시켜 독립시키는 안용복의 선언은 이후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疆界考)□□에서 확고하게 구축된다. 물론 ‘우산무릉’에 대한 용례가 울릉도 본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우산무릉’ 인근의 2도를 지칭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15세기부터로 소급된다.⁴⁾ 우산도라는 울릉도의 이칭(異稱)에서 독립하여 오늘날의 ‘독도’라는 독립적인 이름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광무8년) 무렵이다. 19세기에 울릉도 재개척단이 파견되면서 울릉도민 사이에 독도

4) 이에 대해서는 대서준휘(大西俊輝), □□독도□□, 제이앤씨, 2004, 253쪽을 참조하기 바람.

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성되어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는데, 이는 독도 인근의 어업권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독자적인 이름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에서 독도에 표류하는 세 명의 어부가 울릉도 어민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독도와 울릉도가 본래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우산국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는 눈으로 그 존재를 상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척에 위치해 있고,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울릉도 문화권으로 통합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기인한다. 문화적인 통합성과 일치성은 독도 전설에 울릉도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울릉도 전설 속에 독도가 한 지리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늘사람」⁵⁾에서는 조선의 공도화 정책 때문에 마침 비워져 있던 울릉도를 해적질의 소굴로 삼고 있던 일본의 해적에게 독도 근해에서 사로잡힌 조선인 젊은이 두 사람의 탈출기를 담고 있다. 텍스트의 주 무대는 울릉도이지만 그 인근 해역에 위치하여 동해안 어민들에게 중요한 어업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독도가 주인공 등장 및 사건 발생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이는 독도가 울릉도의 동일한 지리적·문화적 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지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일 생활권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산도(假山島)라는 지명은 동해에 위치해 있다고 믿어진 이상향 섬인 가산도에 관한 전설에서 따온 이름이다. 동해 일대에서 전통적으로 어업과 무역 생활을 사던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인 가산도가 존재하며, 평상시에는 그 위치를 알 수 없지만 풍랑을 만나 표류를 한 사람 중에 우연히 그 곳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동해 일대를 생활·문화 권역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독도가 바로 이러한 전설의 유토피아인 가산도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동해 일대에서 어로 혹은 무역 활동을 하다가 배가 좌초하여 실제로 독도에

5) 울릉군,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0-391쪽.

표류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인도로 사람이 살지 않아 원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독도를 전설의 가산도라고 일컫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전승되기 시작했으리라는 것이다.⁶⁾

둘째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정착생활을 한 유인도(有人島)로 존재해온 울릉도 거주 지역민들에게 무인도인 독도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전설의 이상향 섬인 가산도에 부합하는 섬으로 인식되는 전통이 존재했으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구한말 울릉도 개척을 위해 입도한 지역민들 사이에 존재한 독도에 대한 이상향 관념을 들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 공도화(空島化)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 정부가 울릉도의 수목, 해양 자원을 필두로 한 자원 포탈과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한 일본에 대한 대항 정책으로 공도 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 재개척과 주민 이주를 시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1988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일본의 자원 포탈이 울릉도의 무인화 정책에 기인한다고 파악한 조선 정부는 울릉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5년간 세금 면제, 영호남 조운선의 울릉도 내 제조권, 지역민 내부의 도장(島長) 임명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여 이주민을 끌어 모으는 동시에,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울릉도 개발을 본격화 했다. 이 당시 울릉도 이주민은 강원도 출신 7-8호, 경상도 출신 10여 호, 전라도 출신 54명이었다. 식량과 곡식 종자, 가축을 지원하여 농업생산과 축산업을 장려하는 한편 목수와 대장장이도 함께 들여보내 자급자족의 산업 체제를 구축하였고, 총과 칼 등의 무기류도 지급하여 이주민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그 결과 입도 3개월 후에는 총 310여 두락의 농경지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⁷⁾

6) 한편 독도를 가산도에 비정하는 양상은 독도의 실체가 안용복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 그 존재가 전설과 구전으로 널리 퍼져있는, 즉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독도에 대한 조선 시대의 인식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무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2도로서의 '우산무릉'을 구성하는 섬이기도 하되, 아니기도 한 실체가 모호한 독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명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7) 이에 관해서는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2-349쪽을 참조하

그런데 울릉도 개척 초기에 이주해온 사람들 중에는 연고지에서 산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울릉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설 속에 존재하는 동해안의 유토피아인 가산도를 찾아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울릉도에서의 삶이 그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유토피아인 가산도를 찾아 항해를 시작했다. 그 목적지는 현실 속의 가산도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독도였다. 이들은 울릉도에 자생하는 삼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가산도, 즉 독도 탐사에 나섰다. 우산국 이래로 독도는 울릉도와 동일 문화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향의 무릉도(武陵島)란 이미지로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 일대의 지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무릉도란 명칭은 울릉도의 이칭(異稱)인 무릉도가 아니라 무릉도원인 이상향 섬인 무릉도원도(武陵桃園島)란 의미이다.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이란 텍스트에 나타나는 독도에 대한 정체성은 우산국을 구성하는 동해안 제도(諸島)의 하나이자 울릉도의 동일 역사문화생활 권역에 속하는 도서지역으로서의 우산도가 아니라, 동해의 어딘가에 위치한 이상향인 무릉도로서의 가산도에 대한 인식체계에 입각해 있다.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의 텍스트 서사구조는 신선설화(神仙說話) 속에 존재하는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 탐방 모티프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선경설화(仙境說話) 속에서 이상향 탐방은 세 가지 패턴으로 서사화 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적극적인 이상향 탐색이고, 둘째는 신선의 초대에 대한 방문이며, 셋째는 우연한 계기로 인한 입경(入境)이다. 이 중에서도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은 세 번째의 패턴에 해당된다. 우연한 계기에 의해 신선의 선경에 들어가게 되는 선경설화의 패턴을 구성하는 하위 모티프는 다양한데,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의 내러티브가 주로 기대고 있는 것은 선과(仙果) 획득 모티프이다. 우연히 신선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선과를 얻어먹었다는 에피소드로, 흔히 선과는 인간세계의 몇 년 치 먹을거리에 해당하거나

그것을 먹으면 몸이 강건해지고 병이 생기지 않는 신선의 경지에 가까워지거나 하는 신비의 과실로 묘사된다. 선과 획득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선경설화의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 우연히 신선의 세계에 입경(入境)하다.
- ㉡ 신선을 만나 선과(仙果)를 얻어먹고는 다양한 신이 체험을 하다.
- ㉢ 신선의 지시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다.
- ㉣ 다시 신선 세계를 찾아가려 했으나 실패하다.

신선설화에서 ㉠과 ㉡는 신선의 세계가 인간이 함부로 당도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선경(仙境)은 우연히는 한번쯤 이를 수 있는 곳이 되, 그 곳에서 영구히 살거나 다시금 찾을 수는 없는 곳이라는 관념이다. ㉢의 선과 획득과 시음을 통한 신이 체험은 신선세계의 신비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의 서사구조는 이처럼 선과 획득을 중심적인 모티프로 한 선경설화의 그것에 완벽하게 대응된다.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의 서사구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우연히 신선이 사는 무릉도(武陵島)인 가산도(假山島)에 입도(入島)하다.
- ㉡ 신선을 만나 선과(仙果)를 얻어먹고는 신이 체험을 하다.
- ㉢ 신선의 지시대로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오다.
- ㉣ 다시 가산도를 찾아가려 했으나 실패하고 바다에 떠오른 복숭아꽃만 발견하다.

이러한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의 서사구조에서 ㉠과 ㉡는 선과 획득을 중심으로 한 선경설화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과 ㉡에서 선경(仙境)의 입경(入境)이 입도(入島)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이는 보통 육지 내

부의 어떤 특정한 곳으로 나타나는 선경의 공간적 정체성이 독도라는 도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에 와서 육지가 아닌 해양 한 가운데 떠 있는 섬인 이상향으로 변모해 있기 때문이다. 육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관념화 되어 있는 유토피아를 도서 지역에 대입시키려다 보니 일어난 변이에 해당한다. ㉔에서 가산도를 다시 찾는데 실패하고 동해 바다 위에서 발견한 복숭아꽃잎은 「가산도(우산도)의 비밀」 가산도로 불린 독도에 대한 향유층의 인식이 중국의 선경설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무릉도원(武陵桃園), 즉 복숭아꽃이 만발한 유토피아 공간을 모델로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릉도원을 해상에 옮겨놓은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가산도(假山島)라는 독도의 이칭이다. 도서 지역인 독도의 명칭에 산(山)이란 글자를 쓴 것은 우산(于山)처럼 바다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의 모습이 마치 육지의 산처럼 보인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⁸⁾ 그런데 산은 산인데 진짜 산, 즉 진산(眞山)이 아니라 가산(假山)이다. 산을 섬으로 바꾸면 가도(假島)가 되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존재성에 대한 관념은 있되, 그 실존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선세계이다. 신선세계의 존재성에 대한 관념은 이야기,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 장르를 파생하지만 정작 그 실제 위치와 형상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가산도라는 독도의 이칭에도 이처럼 동해 일대의 지역민에게 가상의 신선세계로 관념화 되어 온 독도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신선이 살고 있고 기이한 수목과 과실이 번성한 이상향으로서의 독도에 관한 이미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확인된다. 겐로쿠(元祿) 연간에 간행된 □□잔타이헤이키(殘太平記)□□의 제7권 「죄인원도유형평정지사(罪人遠島流刑評定之事)」⁹⁾에

8) 경남이나 한반도 동북해안 지역에 위치한 섬의 지명 유래 전설에서 섬이 산처럼 보인다는가, 원래는 산이었는데 섬이 되었다든가, 반대로 원래는 섬이었는데 바닷물이 빠지고 육지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이 되었다든가 하는 설명으로부터 이와 동일한 인식체계를 읽어낼 수 있다.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독도는 항상 봄처럼 기후가 온화하고 신선이 살며, 초목과 수산물이 번성한 봉래(蓬萊)의 신선의 섬과 같다고 묘사되어 있다. 고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으며, 이 일대를 기점으로 해양교역을 진행해 왔다는 한·일 교역사로 미루어 볼 때, 독도에 관한 이상향 관념¹⁰⁾과 그 전설이 물자의 교류와 함께 양국의 전설 속에서 교섭한 결과¹¹⁾라고 볼 수 있다.

-
- 9) □□잔타이헤이키(殘太平記)□□, 卷7, 「죄인원도유형평정지사(罪人遠島流刑評定之事)」條, 대서준휘(大西俊輝), □□독도□□, 제이앤씨, 2004, 207쪽.
- 10) 고대 일본에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마쯔시마타케시마(松島竹島)’라 하여 한·일 해양 교역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독도의 지리적인 중요성은 이 도서 지역에 대한 신성관념을 낳았다. 고대 한·일 해양 교역사에서 일본은 한국은 황금과 백은이 반짝이는 동경의 이상국가로서 일본인들에게 인식되었으며, 독도·울릉도의 광역 도서권역은 일본인을 이러한 한국으로 이끌어주는 징검다리의 경하스러운 섬으로 받아들여졌다. 독도·울릉도의 광역 도서권역을 지칭하는 일본 명인 ‘마쯔시마타케시마(松島竹島)’는 일본의 신앙 관념 체계 속에 존재하는 두 신성수(神聖樹)인 송죽(松竹), 즉 대나무와 소나무를 가리킨다. 고대 한·일 해양 교역사 속에서 독도·울릉도 광역 도서권역이 지니는 지리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자연물 그대로의 섬인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신성관념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대 일본에서는 독도·일본의 광역 도서권역에 해당하는 ‘마쯔시마타케시마’ 일대를 ‘우사(宇佐)의 섬’이라 하여 ‘우사의 신’, 즉 해신(海神)이 좌정해 있는 신성한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에 관해서는 대서준휘, 전게서, 273-280쪽을 참조하기 바람.) 독도 지역전설을 일본전설의 일반적인 유형과 비교하는 가운데 공통성과 차별성을 밝히는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 11) 일본의 일월성신(日月星辰) 혹은 태양신 전설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고대 교류사 속에서 교섭의 과정 속에 탄생한 것으로 그 원류는 한국의 「연오랑(延鳥郎) 세오녀(細鳥女)」(□□삼국유사(三國遺事)□□1, 기이(奇異) 1, 延鳥郎·細鳥女條) 전설에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소재영, 「연오·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36, 국어국문학회, 1967, 30쪽; 이흥식, 「여명기의 한일관계와 전설의 검토」, □□국사상 제문제□□2, 국사편찬위원회, 1967, 24쪽; 김성호, □□해양강국 비류백제□□, 지문사, 1982, 185-187쪽; 김현길, 「설화를 통해서 본 고대의 한일관계」, □□호서사학□□11, 호서사학회, 1983, 18-21쪽 등에서 이러한 논의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한·일 독도 전설의 교섭 양상 속에서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이란 텍스트를 보게 되면, 현전하는 한국 전설의 일부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알 수 없는 독도 전설의 지역적 특수성이 드러나게 된다.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은 선경설화를 차용한 도서 전설로서 한반도 지역 전설의 한 부분인 자연 전설의 일반적인 보편성 속에 편입되어 있지만,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노인은 선경설화에서 유형적으로 등장하는 신선의 인물형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어로 행위를 주관하거나, 난파당한 사람의 생명을 수호하는 동시에 독도라는 지역의 안녕과 평안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에 등장하는 노인은 독도의 해신이자 지역 수호신의 직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울릉도의 풍속신앙 전설인 「성하신당(聖霞神堂)」¹²⁾에서는 울릉도의 수호신이자 해신이 등장하는데,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에 등장하는 노인은 이러한 울릉도의 해신에 대응되는 독도의 해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독도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동일 역사문화생활 권역에 속한다고 할 때, 동해안 일대에 두루 전승되는 해신 관념이 각각 독도와 울릉도의 지역적인 정체성 및 특수성과 결합하여 분지된 형태가 「가산도(우산도)의 비밀」과 「성하신당(聖霞神堂)」에 각각 등장하는 독도 해신과 울릉도 해신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전설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보면 도서 지역의 해신은 내륙 지역의 산신이 해양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분화한 형태에 해당한다. 내륙

12)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태종 때인 1137년에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金麟雨)가 울릉도 안무사로 부임하여 울릉도 거주민들을 쇄환하기 위해 왔다가 해신이 현몽하여 일행 중 동남동녀를 이 섬에 남겨두고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이들을 남겨두고 가니 풍량이 멈추므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남겨진 동남동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아사했는데, 안무사 김인우가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신하신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인데, 이후 성하신당은 울릉도민이 농사와 어업의 풍요, 선박의 처녀출항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을 당제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울릉군,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78-379쪽) 동해의 해신에게 동남동녀를 바치던 고대의 풍속이 그 신성관념 해체와 함께 울릉도 마을 당제로 재구성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전설 속에서 산신은 산천 지형을 형성하고 재조정하는 천지창조신이 분화된 형태로 산의 인근에 발달한 마을의 수호신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³⁾ 내륙의 산천 지형을 형성하고 산과 바위를 이동시키는 거인 창조신이 동해안과 서남해안의 해안도서 지역에서는 섬을 만들고 바닷길을 트며, 바위섬을 옮기는 거인신으로 나타난다. 동해안 일대의 마고할미 전설이나 서남해안의 송대할머니 전설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의 초점은 지역 전설의 일종인 자연 전설에 속하는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에 등장하는 노인의 정체가 거인 창조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승되는 독도 전설에서는 독도의 광포 전설인 바위 이동 전설에 속하는 「구멍바위」¹⁴⁾에 등장하는 노인이 바로 이러한 거인 창조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독도 앞바다의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구멍바위」의 노인은 천지자연을 재조정하는 거인 창조신의 면모를 보여준다. 동시에 도서 지역의 지형을 재조정하는 「구멍바위」의 노인은 한반도 내륙에서 산천을 재

13) 이에 관해서는 서영대, □□한국고대 신 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66-79쪽을 참조하기 바람.

14)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천부 앞바다에 있는 구멍바위가 옛날에는 현포 앞 바다에 있었다고 한다. 현포에 기운이 센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은 큰 바위가 자기 마을 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였다. “저 바위를 어디에다 가져다 버려야지”하고는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노를 저어 갔다. 밧줄로 바위를 묶었더니 너무 커서 잘 묶이지 않았고, 묶고 나니 바위가 너무 커서 배를 저었으나 바위는 따라오지 않았다. 내 힘을 업신여긴다 싶어 노인은 또 하나의 큰 바위를 들어 구멍바위를 향해 던졌다. 구멍바위는 그 때 큰 구멍이 났다. 그러자 구멍이 난 바위는 배에 묶여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었다. 바위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다. 천부 앞 바다에까지 배가 왔을 때 “찌찌찌” 하고 바위를 묶은 밧줄이 끊어지는 큰 소리가 났다. “퐁당”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도 배도 물귀신이 되었다. 다만 노인이 끌고 가던 구멍바위만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뿌리 박고 말았다고 한다. 천부에서는 밤사이에 큰 바위가 생겼으니 모두 놀랐다. 이제 곧 천부에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구멍바위를 구멍섬 또는 공암이라고도 부른다는 이야기이다.(「구멍바위」,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조정하는 산신(山神)으로 형상화 되어 있는 천지창조신의 해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 전승되는 독도 전설에서도 독도 해신이 거인신으로 등장하는 자료가 존재한다. 앞서 제시한 □□잔타이헤이키(殘太平記)□□의 제7권 「죄인원도유형평정지사(罪人遠島流刑評定之事)」 텍스트에서 독도의 수호신이자 해신은 울창한 대숲 속에 위치한 바위집 속에 사는 거인신으로 설정되어 있다. 바위 집 안의 넓이는 1정(丁) 4방(方)이나 될 정도로 크며, 그 속에 사는 거인신의 키는 일장이 넘을 정도로 거대하다. 구체적인 모습은 검은 색의 외눈에서는 번개 같은 눈빛이 나오고, 대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있으며, 철봉을 휘두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 전설에서는 독도의 해신이 거인신으로 확실히 등장하는 것이다. 독도의 해신이 거인신이라면, 「구멍바위」에 등장하는 노인의 죽음은 독도의 거인신에 대한 신성관념 해체와 신화 전승의 중단을 형상화 한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울릉도의 해신이 성하 해신당을 비롯하여 울릉도 각처에 산재한 성황당과 해신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그 신성관념과 전설화된 신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독도 해신에 대한 신앙관념 해체는 울릉도 전설과 구분되는 독도 전설의 특수성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풍속신앙 전설

독도 지역의 풍속신앙 전설로는 용신(龍神) 전설이 있다. 한국 전설의 보편성 속에서 용신 전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용신당(龍神堂) 유래 전설이다. 내륙 지역 용신당의 성격인 용신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되는 저수지, 연못, 샘물 등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으로 존재한다. 내륙지역에서 용신은 수신으로서 홍수와 가뭄 등 치수의 문제를 관장하며, 전통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농업용수를 주재하기 때문에 농경신(農耕神)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한편 해안 지역에서 용신은 해안 온천 혹은 바다를 관장하는 온천수신(溫泉水神) 또는 해신(海神)으로 존재한다. 해

안이나 해양에서의 용신은 어로의 풍요와 항해의 안전을 수호하고 어업민과 무역인의 생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로신 혹은 무역신의 수호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자연지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래 전설 속에 용신 전설이 결합되어 있는 패턴이다. 이때의 자연지물은 반드시 용신이 관장하는 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내륙에서는 저수자연못샘물 등의 자연지물의 기원 유래 전설과 결합되며, 해안지역에서는 용굴(龍窟)이나 능선, 절벽, 온천 등과 같은 해안 자연지물의 유래 전설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마을신으로서의 용신이다. 내륙에서의 용신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관장하다 보니 자연히 해당 용수를 바탕으로 농경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주관하는 마을신으로 존재한다. 해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로의 풍작과 항해의 안전은 마을 지역민의 생활의 풍요와 생명의 수호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신으로서의 용신 역시 마을신과 풍요신으로서의 직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독도를 행정구역의 일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용신 전설¹⁵⁾은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패턴의 유형적 특징을 강하게 보여준다. 경주 지역 일대에서 강한 전승력을 보여주는 유금이들 전설 유형 혹은 안강들 전설 유형은 용의 승천과 관련된 용신 신앙이 농경의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자연지물인 평야의 생성으로 귀결되는 내러티브의 양상을 보여준다. 용이 꼬리로 쳐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린 덕분에 홍수의 피해를 면하게 된 동시에 드넓은 경작지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형태이다. 이러한 유금이들 전설 유형과 안강들 전설 유형은 각각 유금이들과 안강들의 지명 유래 전설의 형태와 결합되어 전승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용신 전설의 두 번째 패턴

15) 대구·경북 지역의 용신 풍속신앙의 대표적인 예로 영덕의 용왕제를 들 수 있다.

동해안 일대에 용신앙은 그 기원이 오래되어 보인다. 「영선못」(「영선못」, 유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4쪽), 「울릉못」(「울릉못」, 유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64쪽), 「피바다소」(「피바다소」, 유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65쪽), 「용소」(「용소」, 유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93쪽) 등은 용신앙이 지명 유래담으로 변형된 경우이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북에서도 동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주로 전승되는 호국용 전설은 동해의 용이 동해의 열두 섬을 쳐서 왜구를 막았다는 이야기로 지역 거주민의 안녕과 평안을 수호하는 수호신 신앙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용신 신앙의 세 번째 패턴에 해당한다. 「문무왕의 득천」¹⁶⁾가 대표적인 예화이다. 이들 텍스트 속에서 호국용 전설은 문무대왕 혹은 김부대왕과 같은 역사적 인물의 인물전설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 역사적 인물이 국가의 왕이라는 점에서 건국신의 전승 맥락에서 계승되어 오는 신성관념과 용신에 관한 신앙 관념이 혼효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문무대왕과 김부대왕은 국왕으로서 건국신화의 신성관념 체계 속에 위치한 인물이면서도, 죽어서 국가를 지키는 동해의 호국용이 된다는 점에서 용신에 관한 신앙 관념 체계를 넘나드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동해 호국용 전설 속에서 용신 전설은 단순히 마을 단위의 수호신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수호신으로 그 활동 영역과 범주가 확대된다. 용신이 마을 차원의 신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신격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¹⁷⁾

호국용 전설에서 동해용의 수호 범위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이유는 용신의 권능이 작동하는 지역적인 영역이 국가 대 국가 간의 갈등과 대결이 펼쳐지는 격전장이기 때문이다. 호국용 전설의 주인공인 문무대왕과 김부대왕의 출신국인 신라는 전통적으로 왜구의 해적질에 시달려온 나라이다. 호국용 전설을 여타의 전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승력이 강한 전설로 전승하고 있는 경북 지역은 바로 이 신라의 핵심 거점지로서 일본과의 무역을 활발히 전승하여, 그 결과로 무역의 차익을 얻어 지역의 풍요를 축적한 지역인 동시에, 왜구의 약탈에 노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어온 지역이기도 하다. 한반도 국가의 외교 상대국이자 교역 국가인 일본과 인근

16) □□한국구비문학대계□□ 7-1, 경주시설화 18 ; 「문무왕의 득천」, □□한국구비문학대계□□ 7-2, 월성군 감포읍 설화 15

17) 대구·경북 지역의 호국용 전설은 주로 김부대왕·문무왕 등의 인물전설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도경,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전설’에 관한 연구」, □□영남학□□, 제10호, 2006을 참조하기 바람.

지역 특히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물물을 자랑하는 한반도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온 왜구가 전혀 별개의 집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구가 경북 지역을 노략질하러 한반도로 상륙하는 주요 경로가 바로 동해 해로였기 때문에 동해의 해신으로 존재하는 동해 용신에 관한 신앙은 단순히 어로신과 풍요신이 아니라 호국신의 성격을 보유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도의 용신 전설은 한국 용신 전설의 세 번째 패턴인 지역 수호신으로서의 신성관념 체계 속에 있다. 지역 수호신으로서의 용신 전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경북의 대표적인 용신 전설인 호국용 전설 유형에 속한다는 점에서 용신 신앙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도 용신 전설의 대표적인 텍스트는 「하늘로 간 용」¹⁸⁾이다. 이 텍스트는 두 개의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삽화는 동해에 여러 섬이 있었는데, 가장 큰 섬에 살던 큰 용이 꼬리로 섬들을 모두 때려 부수고는 울릉도의 성인봉 꼭대기에서 승천을 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삽화는 동해에 일곱 개의 섬이 있었는데 해적들이 많이 들끓자 용이 모두 꼬리로 쳐서 없애 버렸다. 바다에 가라앉은 섬을 가산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이다.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은 기본적인 서사구조에 있어서는 경북 지역의 호국용 전설 유형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내러티브의 형상화 양상에 있어서는 경북 지역 호국용 전설과 차별화된 측면을 보여준다. 경북 지역 호국용은 원래부터 동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왕이 죽어서 화신(化神)한 존재이다. 이는 독립된 왕국으로 존재하던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후로, 독도의 지역적 정체성이 신라의 바운더리 속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서 동해의 용은 신라라는 국가와는 관계가 없다. 동해의 용은 원래 독도 인근 해역에 존재하고 있고, 이 일대 도서 지역을 노략하는 해적을 없애 버리기 위해 그들의 근거지가 되는 섬들을 꼬리로 쳐서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

18)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2쪽.

로 간 용」에 등장하는 용신이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기 이전부터 그 인근 도서 지역을 포함한 동해의 용신으로서 신성관념과 전설을 전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북 지역 호국용 전설의 서술 초점은 철저히 신라의 국민과 영토, 재산의 보호에 있다. 경북 지역 호국용 전설의 서술 시각과 결말구조는 신라를 중심에 놓고 짜여진다. 신라의 호국용이 자국의 해안을 노략질 하는 외구의 이동 경로가 되는 열두 섬을 꼬리로 쳐서 없애 버린 것은 어디까지나 신라라는 국가의 수호신으로서 권능을 발휘한 것인 동시에 그 직능을 수행한 것이다. 신라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동해의 제도(諸島)가 일본인 혹은 왜구 이동의 중간 기착지가 된다는 인식은 일본의 전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전설 속에서 동해를 매개로 한 한일 무역 경로 속에서 최종 목적지는 황금과 백은이 반짝거리는 카라쿠니, 즉 한국으로 나타나며,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가는 그 도해(渡海)의 경로 속에서 독도는 그 중간에 위치한 섬으로 등장한다. 신라의 국가 수호신으로서의 동해용의 직능은 동해 열두 섬의 파괴로 완벽히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경북 지역 호국용 전설의 내러티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단원을 맞는다. 반면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서 텍스트의 서술 초점은 신라가 아니라 독도 혹은 그 인근의 해역에 놓여 있다. 신라라는 국가의 존재 여부는 아예 텍스트의 문면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독도를 포함한 인근 도서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의 동해용이 동해의 여러 섬을 때려 부순 것은 그 일대에 들끓는 해적을 없애기 위함이다. 동해의 여러 자잘한 섬들이 해적들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북의 호국용 전설에서 동해의 섬들이 신라의 동해안으로 입국하기 위한 중간 이동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비해,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서는 해적들의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구가 아니라 해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동해의 자잘한 섬을 거점으로 활동한 해적들의 출신 성분에는 왜구뿐만 아니라 삶의 거점을 잃고 동해의 도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노략질로 연명하던 한반도 출신의 백

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에 와서 태종이 울릉도의 공도화(空島化)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왜구가 아닌 포괄적인 의미의 해적 창궐이었음으로 미루어 볼 때,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 등장하는 동해의 용신이 동해도(東海島)를 때려 부순 것은 거점이 되는 공간을 없앴으로써 해적으로 활동하는 한반도 출신 백성들을 내륙으로 소환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서 동해의 용신이 행한 동해제도(東海諸島)의 파괴는 태종의 울릉도 도민 소거(掃去)와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늘로 간 용」이 독도의 용신 전설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북의 호국용 전설과 달리 텍스트의 내러티브는 동해용의 동해제도 파괴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서는 동해 용신의 동해제도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울릉도가 복섬(福島)이기 때문에 선인봉 꼭대기에서 승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만 남겨두었다고 한 대단원에서 독도의 유래가 설명된다. 물론 울릉도가 동해의 중요한 도서 지역이라는 인식은 경북의 호국용 전설에서도 등장한다. 동해의 용이 동해제도의 마지막 섬인 울릉도를 치려고 했더니 하늘의 옥황상제가 울릉도는 조선의 수구맥이라고 하여 남겨두었다는 설정이다. 그러나 경북의 호국용 전설에서 독도의 유래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산국의 본국이 위치해 있던 울릉도까지는 주요한 도서 지역으로 인식되어도 독도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신라의 동해 제도의 영유인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경북의 호국용 전설 속에 형상화 되어 있는 신라 중심의 동해 제도 영유인식 체계 속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과 달리, 「하늘로 간 용」에서 독도를 서술 초점에 놓고 그 유래와 후일담 서술에 주력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특성은 이 텍스트가 독도 지역의 전설로서 그 지역적인 특수성과 정체성을 형상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둘 것은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서 가산도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동해의 용이 파괴하여 바닷속으로 가라앉혀버린 섬을 가리킨다. 바닷 속에 가라앉은 그 섬의

본체는 존재하지만 해수면 위로 올라온 몸체가 없기 때문에 진짜 섬이 아니라 가산이라는 의미이다. 진짜 섬이 아니라 가짜 도산(島山)인 것이다. 경북의 호국용 전설에서 지금도 바다 속에 동해용이 파괴하여 가라앉힌 섬의 잔영이 보인다고 할 때의 동해 속에 가라앉은 섬이 바로 독도 전설로서의 「하늘로 간 용」에 등장하는 가산도에 해당한다. 독도의 도서 전설인 「가산도(우산도)의 비밀」에서 등장하는 동해의 이상향 섬이자 울릉도에 대응되는 무인도 유포피아로서의 독도를 가리키는 가산도와는 다른 인식 체계 속에 위치한 지명인 것이다.

4. 지명 유래 전설

독도 지역의 지명유래 전설의 존재 양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독도의 본섬에 관한 지명 유래 전설이고, 두 번째는 독도의 본섬인 동도와 서도 인근 해안에 위치한 자갈한 바위섬에 관한 지명 유래 전설이다.

독도의 섬 이름은 독도(獨島), 가산도(假山島), 가지도(可支島), 삼봉도(三峰島) 등으로 다양하다. 먼저 「독도(獨島)」란 지명의 유래 전설을 살펴보자. 홀로 독(獨) 자를 쓰는 이 한자 지명은 넓은 동해의 가운데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독도의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전승이 있다. 독도가 울릉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위치 지워져 온 측면에서 볼 때, 울릉도 거주민들이 바라보는 독도의 모습은 동해의 망망대해 속에 홀로 떠 있는 고도(孤島)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또 다른 독도의 지명 유래 전설은 바위섬인 독도의 지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돌섬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른바 「석도(石島)」전설이다. 독(獨)이란 한자는 돌을 의미하는 ‘독’이란 단어의 음차 표기가 된다. 전라도 방언의 체계에서 돌은 ‘독’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독도는 바위섬, 즉 돌도(石島)가 되는 것이다. 19세기 고종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독도 개척사에서 내륙에서 독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대부

분은 전라도 지역민이었다. 독도의 한 지명 유래 전설이 전라도의 방언 체계와 함께 설명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¹⁹⁾

독도의 지명 유래 전설로서의 「간산도(干山島)」 전설은 동해에 존재하는 환상의 이상향인 섬에 관한 가산도 전설과 관련되어 있다. 가산도(假山島)는 말 그대로 그에 관한 이상 관념은 존재하지만 그 실물인 섬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은 해양 유토피아에 관한 전설이다. 한국의 해양 유토피아 전설은 제주도 근해의 남해안에서는 「이어도 전설」로 분화한다. 「가산도 전설」은 한국 해양 유토피아 전설의 동해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이처럼 가산도 전설은 원래 한국 해양 유토피아 전설의 동해안 버전으로서 특정한 실제의 섬과 관계가 없는 보편적인 전설 유형으로 존재한다. 한국 해양 전설로서의 보편적인 가산도 전설은 동해 바다 한 가운데 환상의 섬, 가산도가 있는데, 그 섬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으며, 천도복숭아가 무르익고, 그것을 하나만 먹어도 일 년을 너끈히 살 수 있다는 섬이다. 이 가산도 전설은 특정 섬의 지리적 공간과 특별히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상의 이상향 관념을 지닌 사람의 인식체계에 따라 어떤 지명하고도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자료인 「하늘로 간 용」²¹⁾에서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해수면 위에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해저섬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假山島(于山島)의 비밀」²²⁾에서처럼 독도의 실존 지리 공간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향의 관념체계 속에서 가산도는 현실적인 삶의 공간과 대립적인 의미향으로 존재한다. 현실적인

19) 오늘날의 ‘독도’라는 독립적인 이름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광무8년) 무렵, 울릉도 개척이 본격화 되면서 비롯되었다.

20) 이러한 한국의 해양 유토피아 전설이 본격적인 문학의 소재로 등장한 것이 바로 「홍길동전」이다. 대중소설로서 상업적인 출판 대상이 된 「홍길동전」의 이본과는 달리, 「율도국전(栗島國傳)」이라는 한문 이본은 조선조 지식인의 이상사회에 대한 철학을 한국의 전통적인 해양 유토피아 전설에 담아낸 작품이다.

21)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2쪽.

22)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2-349쪽.

삶의 공간이 일상적이라면 가산도는 환상적인 공간이고, 현실적인 삶의 공간이 고단한 생활의 공간이라면 가산도는 지상낙원인 공간이 된다. 가산도에 내재한 이상향 관념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미 실현하고 난 것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유토피아 공간으로서의 가산도는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일상적 인간들의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다. 현실 세계에서 일상적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관념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인 해양 유토피아 전설로서의 가산도 전설이 독도라는 실존 지명 및 지리적인 공간과 결합하게 되면 특수한 지역사적인 의미망을 지닌 지명 유래 전설이 된다. 가산도 전설이 독도의 지역 전설이자 지명 유래 전설로서의 유형 체계 속에 편입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간산도(干山島)」 전설이다. 간산도(干山島)란 독도의 또 다른 지명인 우산도(于山島)의 ‘우(于)’자를 ‘간(干)’자로 잘못 표기한 이름이라는 설도 존재하지만, 단순히 문자의 오기로 이 지명 유래 전설의 존재와 의미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우산도인 독도를 동해에 위치한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져온 해양 유토피아로서의 가산도에 비정하는 관념체계가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또 이것이 독도의 지명 유래 전설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가산도로서의 우산도라는 의미의 전승체계가 파생되면서 간산도라는 지명 유래 전설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간산도 전설이 가산도로서의 우산도, 즉 독도 전설로 존재했으며, 그러한 관념체계와 전설의 전승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다는 예를 식민지 시대 보천

23) 한편 ‘간산도(干山島)’라는 독도의 이칭(異稱)은 ‘우산무릉(于山武陵)’에서 분화하여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는 전통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실체가 모호한 섬이라는 의미의 가산도(假山島), 마지막으로 실존하지 않는 무릉도원으로서의 가산도(假山島)라는 적어도 세 개의 명칭에 대한 인식이 혼합되어 탄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특히 ‘간산도(干山島)’의 ‘간산(干山)’이 ‘우산(于山)’의 한자 표현을 오기(誤記)하는 가운데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교(普天敎) 교민들과 관련된 간산도 전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보천교는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증산교 계통의 종교로 동학혁명이 실패한 후에 실의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규합하며 교세를 확장했다. 이 보천교 교도들 중의 일부 지파가 당시 한반도 내륙의 지역민들에게 지상낙원이라고 알려진 울릉도로 이주해 왔는데, 실제로 와 보니 울릉도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상낙원이 아니었고, 그들 앞에는 내륙에서의 생활보다 더 고단한 개척민들의 힘겨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보천교 교도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던 이상향 관념에 울릉도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릉도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 유토피아 관념체계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독도를 가산도에 비정하고 그 곳을 찾아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풍량을 제어하지 못해 수장되는 일이 많았다. 전설의 이상향 유토피아인 간산도로서의 독도의 지명 유래 전설은 ‘간산도를 찾아가세. 간산도를 찾아가세. 간산도에서 불로장생하리라.’와 같은 「간산도 민요」를 파생하기도 했다.²⁴⁾

독도의 지명 유래 전설로서의 「간산도」 전설에 등장하는 보천교 교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가보지 못한 독도를 신비의 가산도로 이상화 하고, 독도로 이주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독도를 무릉도원과 같은 신선세계로 생각하는 관념과 전설의 유래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지명 유래 전설로서의 또 다른 「간산도」에 관한 텍스트에서는 독도의 바위 위에 누워 있는 강치, 즉 물개들의 모습을 백발의 노인 신선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신선이 사는 이상향 섬인 간산도로서의 독도에 관한 관념을 만들어 낸 한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강치라는 해양 생물이 독도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해안 어떤 도서 지역에서도 서식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강치의 생경한 모습이 신이한 전설을 만들어 내고, 그 신이관념이 강치가 사는 독도에 덧씌워 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지도(可支島)」 전설은 이처럼 독도의 특산 동물인 강치를 울릉도 지역민이 부르는 이름인 가제 혹은

24) 이에 관해서는 김성호,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도서출판 예나무, 2006를 참조하기 바람.

가지(可支)에서 독도의 지명이 유래한다는 설명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동물 전설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 외에도 독도를 신이 사는 섬에 비정하는 관념은 앞서 「假山島(于山島)의 비밀」²⁵⁾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해의 해신에 관한 신성 관념과 결부되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비한 신의 섬으로서의 독도에 관한 이상향 전설은 간산도 전설로 완성되어 한반도의 내륙 지역민들에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지배자에게 수탈당하는 피지배민으로서의 백성들에게 강요되는 간고한 삶의 역사가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이상향 전설이나 구세주 전설은 백성들에 대한 기득층의 지배구조가 부조리함을 노정하고, 그것이 축적되어 총체적인 난국을 초래할 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백성의 삶이 삶의 터전인 토지와 집을 잃고, 가족들과도 이산하여 전국을 헤매며 유리결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배구조의 부조리성이 확대되게 될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어김없이 미륵하세 신앙이나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고대국가 확립기에 불교의 교세 확대나, 구한말과 근세에 동학을 비롯한 각종 민족종교와 기독교가 그 세력을 확대한 배경에도 기득층의 기존 지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정신적인 구원을 천당 지옥설, 구세주설 등에서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독도의 지명 유래 전설로서의 「간산도」 전설에 등장하는 증산도 계파인 보천교도 마찬가지로의 예에 해당한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수탈과 망국의 설움이라는 이중적인 고난에 직면한 백성들이 현실세계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삶의 희망을 해양 유토피아로서의 가산도인 독도에 투영한 것이 간산도 전설로 확대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5)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2-349쪽.

5. 인문 전설

독도는 무인도 바위섬이기 때문에 성, 탑, 사당, 다리, 비석, 누정, 우물 등과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과 그에 얽힌 역사문화적인 유래에 관한 인문 전설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독도 지킴이 부부와 독도 해양 수비대가 상주하며 등대도 세워져 있지만, 우산국의 본국이 존재하며 인간이 생활한 역사가 오래된 울릉도와 비교할 때, 그 전설의 하위 유형이 분포하는 양상은 분명히 다르다. 독도의 인문 전설은 울릉도를 포함하여 경북 지역 인문 전설의 일반적인 존재 양상 및 구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도의 인문지리적인 특수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문 전설 유형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가 바로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²⁶⁾이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해안에 살던 연오랑이 해조를 따다가 바다에 떠온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 국왕이 되었고, 세오녀도 역시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 후 신라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자 신라정부는 두 사람의 귀국을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한 연오랑 부부가 대신 세오녀가 짝 비단을 주므로 이를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일월(日月)이 원래대로 빛을 찾았다는 이야기이다.

경북의 전설 속에서 「연오랑과 세오녀」는 해당 지역 출신에 관한 인물 전설이자 일월에 관한 풍속신앙 전설로서 존재한다. 아울러 경북 지역과 일본의 교류사를 설명하는 인문 전설로 존재하기도 한다. 풍속신앙 전설로서의 「연오랑과 세오녀」는 경북 영일만 일대에 신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일월 숭배 신앙 및 제천 행사의 풍속 신앙사를 담고 있으며, 인문 전설로서의 「연오랑 세오녀」는 신라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때 발생한 영일만 지역 부족 국가의 흡수 통합과 영일만 지역 부족 국가를 다스리던 왕족의 일본 도해 역사를 담고 있다.²⁷⁾

26) □□삼국유사(三國遺事□□1, 기이(奇異) 1, 延烏郎細烏女條.

그런데 독도의 인문 전설로서의 「연오랑과 세오녀」는 신라 아달라왕 4년에 발생한 영일만 지역 고대 국가의 멸망과 왕족의 일본 이주의 과정에서 도해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 독도의 독립적인 인문 지리적 특수성을 설명해 준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영일만 일대에 존재한 고대 독립 부족 국가의 수장이자, 태양신의 인간적인 화현체(化現體)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정일치 시대에 여성 지도자가 국가적인 차원의 제천행사를 주관한 신관으로 존재했던 예를 신라 제2대왕인 남해왕과 그의 누이인 아노(阿老)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해왕과 그 누이인 아노는 각각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권력과 신관으로서의 종교적인 권력을 양분하여 이인일각으로 국가를 통치했다.²⁷⁾ 세오녀는 태양의 여신으로서 직물신(織物神)의 직능도 겸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화체계 속에서 창조신의 권능을 이어받은 여신들은 직물신으로도 나타난다.²⁹⁾ 씨실과 날실을 엮어서 직물을 직조하는 행위는 자연지물을 형성하여 천지를 형성하는 창조행위를 상징한다는 인식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직물과 관련된 상징체계는 여신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일만 일대 토착 부족국가 수장으로 제정을 이인일각으로 통치하던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

27) □□삼국사기(三國史記)□□, 新羅本紀, 卷2, 아달라왕4년의 “始置甘勿, 馬山驛”이라는 기사로 미루어 보아 신라는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4년에 오늘날 한반도 동북부 해안의 영일현 일대에 위치했던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흡수 병합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김성호는 한반도 동북부 해안의 선거주자인 연오랑과 세오녀가 기장(機張) 근처까지 도피하였고, 다시 추격하는 신라군을 피하여 일본 열도로 도해했을 것으로 보고, 그 근거로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추호(追號)인 ‘기장족희(氣長足姬)’가 한국식 한자음으로 ‘기장족희’ 즉 ‘기장(機張: 양산군 기장면)에서 온 여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세오녀가 도해한 장소와 일치한다는 점을 든 바 있다(김성호, □□해양강국 비류백제□□, 지문사, 1982, 185-187쪽).

28) □□삼국사기(三國史記)□□, 「雜誌, 祭祀條」의 기록에 따르면 아노는 박혁거세의 사시제(四時際)를 주관했다.

29) 이에 관해서는 이지영, 「織物神의 傳承에 관한 試論的 研究-옷·베짜기 신화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회, 2002를 참조하기 바람.

는 154-184년 무렵 신라 아달라왕의 침공으로 국가를 빼앗긴 뒤, 자신들의 집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국왕 부부만 이주한 것이라면 신라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이유가 없다. 신라 정부가 야단스레 나섰던 배경에는 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배후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오랑과 세오녀」처럼 일월신앙을 지닌 한반도 동해안 거주민의 일본 이주담을 담고 있는 천일창(天日槍) 왕자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지만 신라의 일월 정기가 사라지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앙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라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하지도 않는다. 영일만 토착 부족국가의 국왕 부부로서의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일본 이주는 신라에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아야 신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영일만 토착 부족국가의 국왕 부부로서의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일본 이주와 관련된 풍속신앙 전설이자 인문 전설로서의 「연오랑과 세오녀」가 독도의 인문 전설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지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동해의 바닷가에 있던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 앞에 차례로 나타나 그들을 태우고 일본 열도로 간 바위섬의 정체이다. 텍스트 속에서는 어느 날 홀연히 바위섬이 나타나 연오랑과 세오녀를 태우고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는 영일만 토착 부족국가의 국왕 부부로서의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일본 이주가 지니는 정치적인 맥락을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연오랑·세오녀 부부를 동해안 바닷가에서 어민으로서 우연히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일본으로 옮겨가서 국왕이 되어 행복을 거머쥔 민중의 전형적인 민담 형식으로 스토리를 짜나가고 있지만 한반도 사람의 일본 이주사에 있어서 평민이 지역 국가를 비롯한 일본의 국왕이 된 경우는 없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일본 이주는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의지적인 정치 행위이며,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이들 부부의 도해 과정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바위섬 역시 역사지리적인 맥락에서 그 정체를 확인할 필요가 제기된다.

「연오랑과 세오녀」에서 하필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도해 매개체를 바위섬이라고 한 부분을 세삼 주목해 보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해양 교류사에서 이동 경로에 위치하는 동시에 중간 기착지 구실을 한 독도의 존재가 떠오른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영일만 일대를 떠나 독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입도한 과정을 바위섬을 매개로 한 이동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독도에 관한 한일 전설의 교섭양상에 대한 비교 검토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해신에 관한 일본 전설인 「우사(宇佐)의 팔번궁(八幡宮)」³⁰⁾ 속에서, 이 해신은 주된 항로를 벗어나 주변부에 위치한 우사의 섬에 사는 존재로 형상화되며, 이 우사의 섬은 독도에 관한 일본 전설 연구사 속에서 흔히 독도에 비정된다. 그 이유는 우사의 섬에서 일본 열도로 도래하는 해신이 거대한 뱃길을 타고 오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거대한 뱃길이란 일본인의 인식체계 속에서 대나무섬으로 각인되어 있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독도·울릉도 광역 도서권역을 상징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본의 「우사(宇佐)의 팔번궁(八幡宮)」 이야기는 독도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일본 열도로 도래한 한반도 정치세력을 묘사한 신화로 생각된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전설과 동일한 기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식체계 속에서 독도는 바위섬이고, 독도 지명 유래 전설에서 독도란 지명이 바위를 지칭하는 전라도 방언에서 기원한 것으로 설명되는 만큼 대나무섬과 관련된 상징체계를 바위섬의 상징체계로 이동하기만 하면, 「연오랑과 세오녀」와 독도에 관한 일본 전설은 동일한 뿌리에서 파생된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일만 토착 부족국가의 국왕 부부로서의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일본 이주의 중간 기착지로 하필 독도를 선택한 배경 속에 당시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존재했던 우산국의 존재가 놓여 있다는 점이다.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것은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일본 이주 후, 6세기 정도가 지

30) □□우사탁선집(于佐託宣集)□□.

난 뒤의 일로, 이 무렵 우산국은 한반도와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독립적인 고대 해양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다.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이 일대 해역 인근의 도서 지역을 통치하면서 해상 중개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산국의 최후를 묘사한 「비슬산과 학포」³¹⁾ 전설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우산국의 국력은 멸망당시인 우해왕(于海王) 무렵까지도 강성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우해왕 때 우산국의 세력권은 대마도까지 미쳐 있었다. 대마도를 직접 정벌한 우산국 국왕에 관한 현전 기록은 우해왕이 유일하지만 우산국의 세력 판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도서 지역에 두루 미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독도의 인문 전설로서의 「연오랑과 세오녀」에서, 영일만 토착 부족 국가의 국왕 부부로서의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일본 이주의 중간 기착지로 독도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우산국이 중요한 의미를 띠는 지점은 바로 신라와 관계없는 역사적·문화적·정치적·군사적 독자성이다. 「사자바위」³²⁾와 같은 전설을 보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거친 풍랑이 일고 암초가 많은 바다를 무대로 세력을 키워온 우산국의 수군에 신라의 군대는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산국은 강력한 수군을 기반으로 인근 해역의 도서 지역에 위치한 부족 국가들을 제압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 혹은 중국과 일본 열도 사이를 오가는 무역을 중개함으로써 국가적인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산국이 중간에 버티고 선 동해의 해역은 한·중·일 삼국이 대열을 짠 다수의 범선 군단이 나란히 바다를 건너는 도해교역의 형태였다. 게다가 우산국의 문화는 신라와도 다른 형태였다. 「와달리의 용굴」³³⁾, 「용녀」³⁴⁾, 「하늘로 간 용」³⁵⁾과 같은 전설 자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산국에서는 토착적인 용신 신앙이 특별한 굴절 없이 국가

31) 울릉군,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80쪽.

32) 울릉군,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79쪽.

33) 울릉군,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75-376쪽.

34) 울릉군,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81-383쪽.

35) 울릉군,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1988, 392쪽.

전체의 신앙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용신 신앙과 우산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자바위」를 보면 전통의 토착적인 용신 신앙과 문화를 유지한 우산국과 달리 6세기를 전후한 즈음에 이미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인 신라가 그 기술적 우위와 문화적인 글로벌성을 무기로 우산국을 점령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6세기까지 동해상에서 강력한 국력을 유지한 우산국이 멸망한 데에는, 오늘날의 전차 혹은 장갑차에 해당하는 첨단 무기, 즉 불화살을 내뿜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미비, 풍미녀의 사치로 상징되는 대마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 도서 국가의 이반, 사자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문화조류에 대한 공포감으로 묘사된 문화적인 폐쇄성 등이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일만 일대 부족 국가의 수장인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신라에게 패망하여 일본으로 도해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중간 기착지로 선택한 1세기 무렵에는 우산국이 굳건한 국력과 문화적·군사적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근 동해도 부족국가들과의 우호관계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일만 토착 부족국가의 국왕 부부로서의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일본 이주의 중간 기착지로 하필 독도를 선택한 배경에는, 신라에 대하여 독도가 지닌 이러한 문화적·정치적·군사적 독자성이 중대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나오는 말

본 연구에서는 독도 지역전설의 존재양상과 특징이 한국전설의 일반적인 유형성 속에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문학적·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도의 지역전설에서 확인되는 특수성이 한국전설의 보편적인 일반성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의 그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독도의 지역전설에

관한 분석에서 추출한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일본의 그것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서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의 그것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역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관점 외에도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을 개척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문학적인 측면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도의 지역전설을 통해 독도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미답 지역이었던 독도 전설의 존재 양상과 특징을 밝힘으로써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문학 교육의 새 장을 여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태종실록□□
 □□동국여지승람□□

- 강진옥(1993),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25, 민속학회.
 국립중앙박물관(2006),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권태효(1997),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
 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권태효(1998), 「표모형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인문논총□□, 경기대 인문대학.
 권태효(2002),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김명기(1995), □□독도와 국제법□□, 화학사.
 김문태(1995), 「부래도 전승의 원초적 의미와 습합양상」,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
 사 문맥 연구□□, 태학사.
 김병렬(1997),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김병오(1997), 「독도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김성호(1982), □□해양강국 비류백제□□, 지문사.
 김성호(2006),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도서출판 예나무.
 김원룡(1964), 「울릉도」.
 김윤곤, 「울릉도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대 박물관 학술총서□□ 6.
 김화홍(2005), □□역사적 실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인간과자연사.
 김현길(1983), 「설화를 통해서 본 고대의 한일관계」, □□호서사학□□ 11, 호서사학회.
 나이트우세이쥬우 저, 권오엽, 권정 [공]역(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나홍주(199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 대서준휘(大西俊輝)(2004), □□독도□□, 제이앤씨.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도학회(1996), □□독도영유문제와 민족의식□□,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독도박물관관(2000), □□독도를 둘러싼 바다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 독도박물관.
- 독도학회(1998), □□독도영유권 문제와 해양주권의 재검토□□.
- 독도학회(2002), □□독도영유권 연구논집□□, 독도연구보전협회.
- 독도학회(2003),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협회.
- 소재영(1967), 「연오·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 36, 국어국문학회.
-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접근□□, 단국대학교출판부.
- 신용하(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 울릉군(1988), □□울릉군지□□, 울릉군지편찬위원회.
- 이동순 외(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명식(1999),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일월제」,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이명진(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이예균·김성호(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88□□, 예나루.
- 이지영(2002), 「織物神의 傳承에 관한 試論의 研究－옷·베짜기 신화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학회.
- 이홍식(1967), 「여명기의 한일관계와 전설의 검토」, □□국사상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
- 자연보호중앙협의회(1996), □□자연실태종합학술보고서: 울릉도 및 독도□□, 자연보호중앙협의회.
- 장덕순(1970), □□설화 문학 개설□□, 이우출판사.
- 장덕순(1974), □□한국문학사□□, 동화출판사.
- 천혜숙(1999), 「마을우주와 신화적 세계관－마을 단위의 신화적 전승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8, 한국구비문학학회.
- 한국자연보존협회(1981), □□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소(1996),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2000), □□아름다운섬 독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소(2000),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04), □□독도자료실 자료해제집□□, 해양수산부.

원고 접수일: 2008년 6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6월 일